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그릿(Grit)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선미¹, 서은주^{2*}

¹배재대학교 겸임교수, ²배재대학교 교수

Social Support and Grit of Nursing Students Impact on Academic Self-Efficacy

Sun Mi Lee¹, Eunju Seo^{2*}

¹Adjunct professor, Dept. of Nursing Pai-Chai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Pai-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D시에 소재하는 5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167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statistics program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r=0.379$, $p<.001$), 그릿($r=0.532$, $p<.001$)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Adju-R²=.277, $p<.001$).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사회적 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메타인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Grit on academic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22 from nursing students in five nursing departments located in City D. A total of 167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statistics program 26.0. As a result, social support($r=0.379$, $p<.001$) and Grit($r=0.532$, $p<.001$) were correlated with academic self-efficacy, and grit was identified as a factor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Adju-R²=.277, $p<.001$).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programs be developed to increase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Grit, Academic self-efficacy, Meta cognition

1. 서론

간호학과는 간호 교육, 연구, 실무 등 간호 전문직을 양성하는 곳으로 간호대학생 대부분은 전공 선택 시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비교적 구체화하여 입학한 학생들이다. 간호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간호사 면허 취득 시험에 합격하여야 비로소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활동이 가능하다[1]. 간호학과 4년의 교육과정은 1학년 때 기초교양과목과 전공 입문 교과목을 학습하고 2학년부턴 본격적인 전공과목 이론학습이 시작되면서 교내에서 핵심간호술기 습득을 시작으로 2·3학년부턴 전공 이론수업과 연계한 전문 실습지인 여러 임상과 지역사회 기관 등 외부 실습 기관에서 수련한다. 4학년이 되면 더욱 심화된 교육과정과 간호사 면허시험 준비, 그리고 취업 준비를 병행하게 된다. 일련의 과정이 모두 간호사 면허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학과 성적 또한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타 학과 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적 부담감이 월등히 높다[2-4].

이렇듯 어려운 과정을 거쳐 원하던 의료환경에 있어야 할 간호사의 이직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2020년 병원간호사의 15.0%가 병원을 떠났고 특히 1년 미만된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45.0%에 달했다[5]. 최근 3년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에서 발생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갑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에 맞춘 커리큘럼을 내놓게 되었고, 이론학습을 바탕으로 실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학과와 비대면 수업 및 온라인실습이라는 제한적인 교육과정에 있던 간호대학생은 취업 시 임상 현장과 간호 술기 적용에 있어 적응의 어려움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저하될 수 있다[6-9].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자원을 의미하며[10],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가족 구성원, 친구, 교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 행위가 포함된다[11]. 대상에 따라 부모의 지지는 안정감과 대처 기술[12], 친구의 지지는 애정, 배려, 친밀감 등의 대인관계[13], 교사의 지지에서는 학업수행능력 증진에 도움을 받는다[14]. 이러한 지지는 사회불안을 낮추는 효과[13]를 가져오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개인일수록 사랑과 돌봄, 타인으로서의 존중감을 느끼

게 되어 신념과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에 노출될 확률이 높지만[16],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 직접적인 취업 행동 및 실천적 노력이 높았다고 나타났다[17]. 간호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한 대학 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18].

개인의 외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 외에도 개인의 내적인 요소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그릿(Grit)의 개념은 한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이다. 장기적인 열정은 장기목표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인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특성을 나타낸다[19]. Duckworth 등은 그릿이 다양한 미래의 성공을 설명하기에 가장 유용하다고 설명하였으며[19], 이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나 능력 발휘 등과 관련하여 초·중·고·대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학업성취나 능력 발휘가 필수적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을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개념으로는 주로 스트레스, 대학 생활 적응, 학업 탄력성, 심리적 안정감, 학업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3, 20]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릿이 높을수록 엄격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며 대학 생활 적응력이 높고 개인의 안정감을 높인다[2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22-23], 대학 생활 적응 요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나아가 대학 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2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새로운 상황, 지식, 기술을 학습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높아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함으로써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25].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것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뿐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고, 더 나아가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그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외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내적 요인인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그릿,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그릿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 간호학과 대학생, 2) 학과 교육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연구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으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166명 이었다. 탈락을 10%를 고려하여 총 182명이 참여하였는데 내용상 불충분 자료 15명을 제외한 총 1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P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No.2-1040766-AB-N-01-2022-06)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인 두 달 동안 실시하였고, 지역 5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과 게시판에 연구대상자 모집 안내문을 게시한 후 구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적힌 피험자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 연구 동의를 작성하여야 설문지 각 문항의 답안을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 도중 및 설문 완성 후에도 연구 참여를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였다.

2.4 측정 도구

2.4.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6개로, 각 문항은 성별, 학년, 종교, 전공 만족도, 간호학 전공 선택 동기, 현재까지의 평균 학점을 포함하였다.

2.4.2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측정은 Nolten(1995)[26]이 개발하고 이미라(2001)[2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 지지(9문항), 친구 지지(9문항), 교수 지지(9문항)로 총 27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미라(2001)[27]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 으로 나타났다.

2.4.3 그릿(Grit)

대상자의 그릿에 대한 측정은 Duckworth & Quinn (2007)[19]이 개발한 것을 한국의 문화에 사용가능한 척도로 개발하고 타당화하여 이수란 등(2021)[28]이 한국형 그릿 척도(K-GRIT)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노력-지속성(10문항), 열정-즐거움(5문항), 열정-의미(5문항)으로 총 20문항이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84 ~ .91로 나타났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85 ~ .94로 나타났다.

2.4.4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 Efficacy)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측정은 김아영(2001)[29]이 개발한 것을,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송소라(2013)[30]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신감(6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원도구의 Cronbach's α 는 .87 ~ 0.79이었고, 송소라(2013)[3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 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statistics program 26.0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는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그릿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자 145명(86.8%), 남자 22명(13.2%)이었고, 연구 대상자 학년은 2학년 52명(31.2%), 3학년 61명(36.5%), 4학년 54명(32.3%)로 구성되었다. 종교는 106명(63.5%)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92명(55.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1명(42.5%)가 보통, 4명(2.4%)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전공에 대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7)

Classification		n(%)
Gender	Female	145(86.8)
	Male	22(13.2)
Grade	2	52(31.1)
	3	61(36.5)
	4	54(32.3)
Religion	Yes	61(36.5)
	No	106(63.5)
Satisfaction of Major	Low	4(2.4)
	Moderate	71(42.5)
	High	92(55.1)
Reason to select the Major	High Employment Rate	85(50.9)
	A Worthwhile Job	33(19.8)
	Aptitude and Interest	38(22.8)
	According to Grades	5(3.0)
	Suggestion from people	6(3.6)
GPA	< 2.5	4(2.4)
	2.5 ~ 2.99	13(7.8)
	3.0 ~ 3.49	44(26.3)
	3.5 ~ 3.99	76(45.5)
	4.0 ≤	30(18.0)

GPA: Grade point Average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공을 선택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높은 취업률'이 85명(50.9%), '적성과 흥미' 38명(22.8%), '가치있는 직업' 33명(19.8%), 주변의 권유 6명(3.6%), '성적에 맞추어' 5명(3.0), 순서로 나타나 높은 취업률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연관된 변수로 현재까지의 성적을 평균 학점을 질문하였으며, 3.5~3.99 76명(45.5%), 3.0~3.49 44명(26.3%), 4.0 이상 30명(18.0%), 2.5~2.99 13명(7.8%), 2.5 미만 4명(2.4%)로 3.5~3.99에 분포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

3.2 사회적 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총점은 135점이고 102.64±19.37로 확인되었다. 그릿 점수는 Likert 척도에 따른 그릿 점수 총점은 100점이고 점수는 67.47±13.98이었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총점 130점 중 81.29±12.40로 나타났다.

Table 2. Academic self-efficacy, grit, social support of the participants

(N=167)

Variables	Mean±S.D
Academic Self-Efficacy	81.29±12.40
Grit	67.47±13.98
Social support	102.64±19.37

3.3 사회적 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그릿은 0.642($p <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0.379($p < .001$),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Table 3. Correl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grit, social support

(N=167)

Variables	Academic Self-Efficacy	Grit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1		
Grit	0.532***	1	
Social support	0.378***	0.642***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7)

General characteristic		Academic Self-Efficacy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78.86±10.79	-1.107	.277
	Male	81.66±12.62		
Grade	2	79.33±12.21	1.749	.177
	3	80.82±13.46		
	4	83.72±11.09		
Religion	Yes	79.93±12.81	-1.075	.284
	No	82.08±12.15		
Satisfaction of Major	High ^a	82.52±11.55	6.221	.002 ^{c(a,b)}
	Moderate ^b	80.85±11.92		
	Low ^c	61.00±23.47		
Reason to select the Major	High Employment Rate	81.52±12.88	.381	.822
	A Worthwhile Job	81.45±11.16		
	Aptitude and Interest	81.66±11.79		
	According to Grades	74.60±8.82		
	Suggestion from people	80.50±19.59		
GPA	< 2.5	86.75±16.05	2.429	.050
	2.5 ~ 2.99	75.54±9.78		
	3.0 ~ 3.49	78.02±13.45		
	3.5 ~ 3.99	82.68±12.02		
	4.0 ≤	84.33±11.07		

GPA: Grade point average

과 그릿은 상관계수 0.532($p < .001$)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6.221, p=.002$). 사후분석을 scheffe로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높거나 보통인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Durbin-Watson 분석 결과 1.997로 2에 근접하여 자기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유의확률은 $p < .001$ 으로 독립변수 중 한 가지 이상이 유효한 것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변수를 확인한 결과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7.7% ($Adj-R^2=.277$)임을 알 수 있다.

Table 5. Predictors of academic self-efficacy

Variables	B	SE	β	p
Social support	.040	.055	.062	.470
Grit	.437	.076	.492	<.001
$R^2 = 0.285$				
Adjusted $R^2 = 0.277$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22, 23], 자신의 학업수행에 대한 성공을 대학교 시절 경험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경험 즉, 임상의 긴박한 상황이나 다른 사회적 활동에서도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25]. 이러한 성향은 간호사로서의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간호사라는 자긍심과 간호질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6]. 이를 위하여 대학 시기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과 교육과정 및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연관이 되는 변수를 확인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서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와 그것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것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련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25]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한 결과로써 소속 학과가 본인의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할 때 전공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27]. 이렇듯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더 나아가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순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을 지지해주는 한편,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소속 학과의 평가 정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이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개인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이 소속 학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개인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에 학과 프로그램 및 지원이 미흡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소속 학과 내에서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해주어 간호학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의 경우 학과와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며, 사랑과 돌봄, 존중을 느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15]. 이를 고려해볼 때, 사회적 지지는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가 가능하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적 지지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교수, 친구, 부모가 각각의 위치에서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COVID-19로 인한 의사소통 기능의 약화와 사회적 지지기능의 약화로 인하여[28, 29] 대체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해진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으로[19], 꾸준한 노력과 흥미를 지속하는 특성이 그것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꾸준한 노력과 흥미를 지속하는 것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간호학과 교육과정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그것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대학생 대상으로는 진로 준비 행동 그룹 코칭 프로그램[30], 집단 놀이치료 프로그램[31], 그것 증진 프로그램[32], 집단상담 프로그램[33]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그 성격이 주로 진로 준비 행동과 관련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추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일개 지역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그것,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한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와 그것이 높은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05/2/view.do?seq=7
- [2] S.H. Hong, J.S. Kim & D.B. Ju. (2020). The Effect

-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9), 443-450. DOI : 10.15207/JKCS.2020.11.9.443
- [3] E. Jeong & M.R. Jung. (2018).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09-317. DOI : 10.14400/JDC.2018.16.9.309
- [4] Y.J. Son, E.Y. Choi. & Y.A. Song.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4), 345-352.
- [5] S. Han, J.H. Park, J.H. Yang, & J.W. Kim. (2021). 2020 Hospital Nursing Personnel Deployment Status Survey. Seoul : *Hospital Nurses Association*.
- [6] S.J. An & K.M. Sung. (2023). Effects of Practice Str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Self-efficacy in Pandemic Situation: Comparison of Clinical Practice and In-schoo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2), 110-123. DOI : 10.5762/KAIS.2023.24.2.110
- [7] I.J. Jeong & S.M. Lim. (2021). Factors Influenc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4), 64-73. DOI : 10.22156/CS4SMB.2021.11.04.064
- [8] H.E. Jones, M. Manze, V. Ngo, P. Lamberson, & N. Freudenberg. (2021).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college students' health and financial stability in new york city: Findings from a population-based sample of city university of new york(CUNY) students. *Journal of Urban Health*. 98(2), 187-196. DOI : 10.1007/s11524-020-00506-x
- [9] L. Liang, H Ren, R. Cao, Y Hu, Z. Qin, C. Li, & S. Mei. (2020). The effect of COVID-19 on youth mental health. *Psychiatric Quarterly*, 91(3), 841-852. DOI : 10.1007/s11126-020-09744-3
- [10] S. Cobb.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11] S.T. Moon & M.H. Bak. (2013).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Optimis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85-204.
- [12] S. Bal, G. Crombez, P.V. Oost, & D. Ilse. (2003).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well-bing and coping with self-reported stressful events in adolescents. *Department of Experimental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27(12), 1377-1395. DOI : 10.1016/j.chiabu.2003.06.002
- [13] H.K. Rhyu & S.H. Lee. (2022).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through Perceived Social Support.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9(3), 81-99. DOI : 10.20496/cpew.2022.9.3.81
- [14] H.A. Bouchey. (2004). Parents, teachers, and peers: Discrepant or complementary achievement socializer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4(106), 35-53.
- [15] S.Y. Jeo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1(1), 93-115.
- [16] S.K. Cho. & Y.S. Choi. (2014).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Style on Depression and Anxiety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1), 53-74.
- [17] N. Wang & J.W. Lee. (2021). Effects of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Conscientiousness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Management. *Food Service Industry Journal*, 17(2), 137-150.
- [18] C.Y. Lee, M.Y. Gwon, N.H. Kim, C.H. Gim, H.J. Kim, J.Y. Park, M.S. Shin, & E.K. Han. (2021). Effects of Grit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3), 680-688. DOI : 10.12925/jkocs.2021.38.3.680
- [19] A.L. Duckworth, C. Peterson, M.D. Matthews, & D.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 [20] S.J. Lee & J.Y. Park. (2018).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16(2), 269-276.
DOI : 10.14400/JDC.2018.16.2.269
- [21] S.R. Lee. (2014).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2]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DOI:10/1037/0033-295x.84.2.191
- [23] R.W. Lent, S.D. Brown, & G. Hackette.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24] K.M. Chang. (200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1), 185-196.
- [25] S.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 25(5), 559-566.
- [26] K.A. Kang. & S.H. Park. (2018).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coping on the resilie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549-558.
- [27] H.Y. Jeong. & O.L. Park. (2009).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e of value,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of beauty 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10(1), 35-49.
- [28] D.H. Kim., W.J. Lee., M.J. Kang., J.Y. Kang., N.R. Kim., S.Y. Kim., S.A. Kim., S.E. Park. & S.M. Bae. (2022).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anxiety, communication skill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bout on-campus clinical practice due to COVID-19.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10), 9-16.
- [29] H.O. Kim., J.S. Yoon., J.H. Kim. & H.Y. Jo. (2021). In the COVID-19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adaption to college life of freshmen at K-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1-10. DOI : 10.14400/JDC.2021.19.8.001
- [30] K.W. Oh & J.K. Tak. (2020). The effect of grit enhancement group coaching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aching Psychology*, 4(1), 21-46.
- [31] H.Y. Ahn. & H.J. Lee. (2021).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group play therapy program to improve the grit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of Child-Family Therapy*, 19, 49-63.
- [32] M.R. Lee., J.H. Tak. & H.W. Lee. (2020). Development and effects of grit enhancement program for pre-serviced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1255-1282.
- [33] J. E. Kim., Y.J. Cho. & J.I. Jung. (2022). Effects of grit improvemen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grit and career anxie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2), 157-162.

이 선 미(Sun-Mi Lee)

[정회원]



- 2020년 8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21년 8월~현재 : 따뜻한 숨 심리 상담 연구소 대표
- 2022년 3월~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만성질환, 스트레스, 가족간호
• E-Mail : digitalite@naver.com

서 은 주(Eunju Seo)

[정회원]



- 200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학사)
- 2012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 2019년 9월~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환자안전, 스트레스
• E-Mail : eunjuseo@pcu.ac.kr